

		보도자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6월 17일(금) 총 4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스마트도시 담당관	담당자 • 스마트GIS팀장 조기웅 ☎440-8936 • 담당자 최상민 ☎440-8937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메타버스 중심에 서다
- 17일, 오픈 메타버스 거버넌스 포럼 개최 -
- 국내외 메타버스 핵심기업 참가, 메타버스 산업 발전위해 민관협력 강조 -

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17일 여의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본사에서 국내·외 메타버스 핵심 기업들과 민관 협력 체계(OMG*) 구성을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◇ 인천형 오픈 메타버스 거버넌스(Open Metaverse Governance)이란?
 : 인천시 내 다양한 데이터를 상호연계하고, 시민과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인 디지털 자산의 축적·활용 또는 새로운 공간경험을 제공할 메타버스 기반의 민관 협력체계

이번 행사는 「MetaWays, 인천시 메타버스 중심에 서다」라는 주제로, 시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협업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지난 5월 24일 네이버 클라우드, NHN 클라우드 등 19개 국내기업과 제1차 포럼을 개최한 후 MS, AWS 등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

는 두 번째 행사다.

시와 공사는 메타버스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, 주요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됐다.

이날 포럼은 ▲인천 메타버스 ‘도시 플랫폼’ 생태계 활성화 ▲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‘거버넌스’ 구축 및 포용사회 구현 ▲시민 참여 및 활성화 측면의 ‘디지털 문화 콘텐츠’ 제언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▲인천형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(계양테크노밸리 ICT, 디지털콘텐츠 특화 산단) 등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.

기조발표에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훈 공항산업기술연구원장은 ‘인천공항의 메타버스 도입’이란 주제로, “인천국제공항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장착해 새로운 공항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디지털 전환에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·연계가 필요하다.”고 강조했다.

그 밖에 메타버스MP 단국대 김태형 교수는 ‘MetaWAYS 및 오픈 메타버스 거버넌스 취지’, 인텔코리아 이주석 부사장은 ‘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메타버스’, 다쏘시스템 양경란 대표는 ‘제조산업 관점의 인더스트리 메타버스’의 주제로 발제를 이어 나갔다.

특히 15개의 메타버스 핵심 기업별 발제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성 확보방안, 정책방향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.

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“인천시가 공공분야에서는 최초로 메

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만큼 많은 기술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더 큰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” 며 “오는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오픈 메타버스 거버넌스(Open Metaverse Governance)를 구성해 출범시킬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시는 공공분야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. 이는 인천국제공항, 개항장, 송도국제도시, 부평역 등 400만㎡ 대상의 3D 지도(Map)를 제작해 실내·외 위치기반의 XR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메타버스 플랫폼이다. 이를 통해 홈 투 플레이 에어포트(여객수요 맞춤형 AR 내비게이션), XR 개항장 도슨트, 부평역 XR 내비게이션 등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※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플랫폼



또 오는 하반기 공공과 민간의 연결·소통·협업에서 더 나아가 ‘METAWAYS’ (Metaverse + All Ways Incheon)를 구성 개념으로 한

인천이음 메타버스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메타버스 도시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, 사회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메타버스산업에서의 인천시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